

피치 "한국 성장을 -1.1%로 하향…금리 25bp 인하 기대"

머니투데이

피치,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기준 -0.9%에서 -1.1%로 하향 조정…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이라며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조치 기대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 연내 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지만 규모는 제한적일 것"

금융당국 "신용대출 급증, 은행 탓인지 볼 것" 경고

서울경제

금융당국, 신용대출 급증에 대해 연거푸 경고장…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고 신용 융자시장과 중시 주변 자금 추이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것"

금융위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조정"…1인당 1천만원에서 오를듯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 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

현재 시중 은행이 공급하는 2차 대출은 소상공인 1명당 1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

'특고 고용보험 적용' 공은 국회로…경영계 반대로 진통 예상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결…이번 주 종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특고는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달라 보험료율도 달리 책정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

문재인 캐어 이후 실손보험 순실 위험 1조 늘었다

데일리안

국내 40개 종합 생보·손보사들 추산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 관련 보험가격 위험액은 총 3조3,021억원…문재인 캐어 정책 가동 직전 2017년 말(2조3,698억원)보다 39.3% 늘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훌러가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민간 보험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짐도 무거워지고 있다는 얘기

개인 공매도 대주 종목 700개로 늘린다…수수료 인하·만기연장도 검토

뉴스1

한국증권금융,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높이기 위해 공매도 위해 빌릴 수 있는 종목 수 기준 400개에서 700개로 늘릴 계획…대주 차입 수수료 인하와 대주 만기 연장도 검토 정부·여당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H20펀드 환매중단에 운용사들 "선량한 관리의무 다한 것"

연합뉴스

브이아이운용, "H20운용은 펀드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에 어려움 있어 일시적으로 설정 및 환매 중단 조치…펀드 자산의 부실과는 무관…자산가치 평가와 관련돼 있는 부문"

키움운용, "H20운용의 멀티펀드와 알레그로 펀드는 모두 유럽 공모펀드 기준을 따르는 해외 공모펀드…분리 예정인 자산을 제외한 기타 자산(91~94%)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용"

증권사, 공모주 청약 쏠림에 우수고객 마케팅 강화

뉴스1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다음달 상장을 앞둔 빅히트까지 공모주 광풍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증권사들이 '슈퍼개미' 등 우수고객 보호에 나서…

최근 공모주 일반청약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증권사들이 기존 고객에게 우대 혜택…증권사간 경쟁 심화되는 모습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